

# 시민이 공동체 의제 제안·결정 시민운동 시작

### 5·18 민족민주화대성회 정신 담은 광주 시민총회 구성 다음달 10대 의제 선정...9월 패널 투표로 최종 결정

5·18 당시 민족민주화대성회 정신을 담아 광주공동체를 위한 의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광주 시민총회'가 구성된다. 16일 광주시와 광주 시민권의 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총회는 시민이 제안하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시민이 의제를 결정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 실천을 이끄는 시민운동이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에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의제를 제안하면 '좋아요' 공감 수에

라 시민총회 '10대 예비의제'가 선정된다. 광주시민총회 의제는 광주정신을 살려 모든 시민이 연대·협력해 실천할 수 있고, 더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 실천과제 또는 광주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한정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마을 민원, 특정 단체·기업의 수익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10일간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10개 중 3대 공론 의제를 압축하면 의제별로 전

문가 등이 참여해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최종 의제는 9월 12일 시민 총회 현장에서 패널의 투표로 선정된다. 이 기간동안 시민 패널도 모집한다. 지역, 성, 연령 등을 안배해 200명을 선발한다. 총회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인 9월 12일 열리며, 최종 의제는 시민총회 현장에서 3대 의제에 대해 대표자 발표, 공론토론을 거쳐 시민패널의 투표로 선정하게 된다. 최종의제가 선정되면 '의제 범시민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행정, 의회, 기관, 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기관·단체별로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최종 의제에 대한 실천방안은 실천선언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알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 광주공동체 의제를 시민운동으로 실천하게 된다. 실천선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성과 등은 차년도 총회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최영태 광주 시민권익위원장은 "시민총회는 5·18 당시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계승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시민이 제안하고, 공감하고, 토론하고, 투표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인 민주도시 광주에서 한 단계 격상된 2020 광주시민총회를 통한 미래변화의 첫 걸음을 시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섬엑스포 2045년 이후 유치

### 섬 관련 대형 이벤트 전략 수정 2026년 여수섬박람회 개최 주력

전남도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정 섬엑스포를 오는 2045년 이후 유치하기로 했다. 부산이 2030년 BIE 등록 박람회 유치에 나서면서 BIE 자체 규약에 따라 15년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인정 여수 국제 섬 박람회(2026년)와 국제기구 인정 섬페스티벌(2028년) 개최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섬 관련 대형 이벤트 주요 전략을 조정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 관련 국제 행사 유치 사업을 단기·중기·장기 전략에 따라 유치 및 개최 시기를 새롭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섬 관련 최대 이벤트였던 BIE 인정 2028년 섬엑스포 유치는 2045년 이후 장기과제로 넘겼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양파농가 일손돕기 함께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회장 김봉선) 소속 60여 명이 16일 나주시 공산면 양파농가를 찾아 수확을 돕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주시 "학생 2명 '가짜 양성', 검체 채취 문제없었다"

광주시는 최근 중·고교생 2명의 코로나 19 "가짜 양성" 판정과 관련해 "병원 선별 진료소의 검체 채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검체 채취 오류에 따른 원 검체 오염 가능성이 높고, 수탁 검사기관이 검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최종 가짜 양성(음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학생은 1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이후 4차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방역 당국과 지역 교육계에 혼선이 생겼다. 1차 검사 당시 서광병원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만 채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협조한 서광병원이 불필요한 오해로 피해를 보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필요"

### 김점기 시의원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서 주장 김광란 "광주형일자리 GGM 경영간섭 말라는 건 부적절"

광주지역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하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남구2) 의원은 16일 열린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주민 삶과 무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논의해 됐다"면서 "이제는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미래를 큰 대의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논의기구를 만들어 경계조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공신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처럼 공론화를 통해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채 시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경영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광란(광산 4) 광주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달 GGM 주주들이 총회를 갖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대신 영

영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노사민정 대타협의 상생형일자리인 GGM이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GGM은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이 같은 가치는 경영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GGM 대표이사과 주주들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나 노사민정협의회가 GGM 경영에 불필요한 간섭을 한 적이 없는 데 왜 이런 발표를 했다 매우 의아스럽다"며 "GGM 경영진의 경영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지난해 1월 현대차와 체결한 투자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실현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인공지능 인재 찾습니다"

광주서 내일 기업 채용 설명회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이 '인공지능 중 심도시' 광주를 이끌 인재를 채용한다. 광주시는 1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채용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전문기업 등 25곳이 참가한다. 티맥스소프트, 한컴그룹, 나무기술, 솔트룩스, 인포웍스, 텔스타호텔 등 광주시와 협약한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기업들은 연내 22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일정과 절차 등을 학생, 취업 준비생에게 소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 울여름 문 닫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광주시는 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지난해에만 2만 5000여 명이 찾은 만큼 인기 있는 도심 여름 명소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다수 이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사람 간 접촉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크고,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 수목장 투자

## 신규 수목장 투자

###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연 24% 수익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납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수목장 14%

납골당 74%

기타 12%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할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